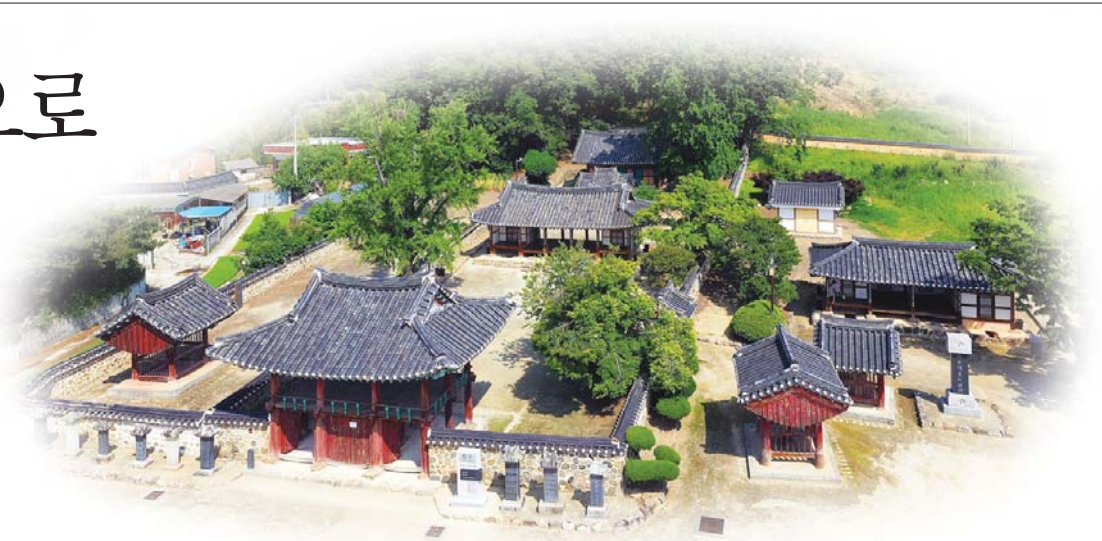


▶ 특집 -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1주년, 다시 보는 무성서원

문화재 넘어 세계인 유산으로

조선시대 핵심 이념인 성리학을 보급하고 구원한 무성서원 등 전국 9개의 서원이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1주년을 맞았다.

정읍시는 대한민국의 문화재를 넘어 세계의 문화유산이 된 무성서원을 지역의 다양한 역사와 문화, 생태자원 등과 연계해 무성서원의 가치를 한층 더 높이기 위한 홍보 및 관광 자원화하는 데 힘써 나가고 있다.



▲어우르는 삶의 고즈넉함이 담겨있는 무성서원

새파란 하늘을 배경 삼아 굽은 가치를 사방으로 뻗치고 있는 나무들, 그리고 간결하고 우아한 건축물이 조화된 무성서원은 고즈넉하고 여유로운 분위기를 자아낸다.

정읍시 칠보면 무성리에 자리한 무성서원(사적 제166호)은 소박하면서도 우아한 건축미가 인상적이다. 군더더기 하나 없는 반듯한 선비의 품도도 묻어났다. 홍살문을 지나면 유식 공간인 현가루, 학습공간인 명륜당, 영정과 위패를 모신 사당으로 이어지는데 간결하고 소박한 짜임새가 경쾌하다.

유네스코는 지난해 7월 6일 아제르바이잔 수도 바쿠에서 열린 제43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무성서원을 포함한 9개 서원을 '한국의 서원'으로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했다. 그중에서도 무성서원은 흥선대원군의 대대적인 서원 철폐령 속에 살아남았던 전북 유일의 서원으로 1968년 사적 제166호로 지정되었다.

▲선비의 정신을 품다

서원은 공부의 공간으로 치열한 이념과 정치 투쟁의 공간으로 알려져 있다. 그렇지만 조선 후기 선비문화를 주도했었고 그 속에서 많은 이야기를 남겼다.

무성서원은 우리나라 유학의 비조로 꼽히는 고운 최치원 선생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가사 문학의 효시인 삼촌곡을 짓고 최초의 향약인 고흥동 향약을 시행한 불우현 정극인 선생 등 7분의 위패를 모신 서원이다.

향촌 사회에서 성리학 이념을 투영해 자체적으로 설립한 무성서원은 조선 시대 교육기



관으로써의 역할을 다했다. 또, 예(禮)와 악(樂)으로 백성을 교화한 대표적 서원으로 그 가치를 높게 평가받았다. 신분 계급을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학문의 기회를 동등하게 제공하기도 했다.

또한, 무성서원이 다른 서원들처럼 산수풍경이 빼어난 곳에 자리한 것과는 달리 향촌 내 마을 중심부에 자리한 것도 매우 이례적이다. 향촌민과 함께 하면서 지역문화를 선도하며 지식인의 사회적 역할을 감당하려는 의미를 읽을 수 있다.

▲1,100여 년의 역사를 고스란히

무성서원은 1615년 서원으로 출발했다. 태



고운 최치원 선생 중심으로

정극인 선생 등 위패 모셔
서원 활용 사업 추진 등
정읍시, 후속조치 나서
축전 행사로 국악한마당 진행

산서원으로 불리다가 숙종 22년인 1696년 사액(賜額)을 받아 무성서원으로 개칭됐다. 고종 5년(1868년) 흥선대원군의 대대적인 서원 철폐령 속에 살아남았던 전북 유일의 서원이다. 당시 전국적으로 47개의 서원만 남았는데 전라도에서는 무성서원과 장성 필암서원, 광주 포충사만 할리지 않았다.

무성서원 사당 한가운데에는 고운 최치원(857년 ~ ?) 선생의 위패와 초상이 모셔져

있는데, 그는 신라 말 태산(지금의 태인, 칠보 일대)의 태수로 부임하여 선정을 베풀고 학문을 장려하였다. 무성서원은 그의 학문과 덕행을 기리기 위해 세운 생사당인 태산사가 뿌리다. 고운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무성서원은 천여 년의 시간을 품고 있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고운이 태산군의 태수로 부임한 886년경부터 계산하면 1,100여 년의 역사다.

▲무성서원에 내재 된 역사적 의미와 가치

알린다!
시는 무성서원의 활용과 관리 방안 등 후속 조치에 발 빠르게 나서고 있다.

유네스코의 등재 기준을 준수하면서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인지도와 활용도는 물론 서원의 본래 모습과 가치를 높이는 데 힘을 모으는 방침이다.

관련해 시는 다양한 홍보 채널 확보와 함께 무성서원을 활용한 사업과 공연·강좌·체험 등 다채로운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올해 12월까지 최치원의 사상과 현가루에서 피어나는 풍류(風流)와 도(道)에 대한 강좌가 진행된다. 또 무성서원 본래의 정신을 이어가기 위한 전통문화 재현 및 병오창의 기념제를 진행하고 서원과 주요 역사 관련 장소를 답사해 예절·다례·사자소화 등을 배우고 체험하는 서원스테이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이 밖에도 시는 무성서원 둘레길을 조성하고, 한국의 서원으로 등재된 9개 서원의 통합 안내판을 제작한다. 또, 무성서원의 디지털 안내시스템과 통합리플렛을 제작해 시민들의 문화유산에 대한 자긍심 고취는 정읍지역 자원으로서의 활용을 높여주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2020년 세계유산 축전- 한국의 서원 '무성서원'

시는 세계유산 등재 1주년을 맞아 축전 행사로 8일 '국악의 풍류를 타고'라는 주제로 KBS 국악한마당 행사를 진행했다.

세계유산축전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세계유산목록에 등재된 국내 세계유산의 가치와 의미를 전 국민이 향유하기 위해 문화재청이 올해부터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이다. 세계유산을 대상으로 한 전통공연과 재연행사를 비롯해 세계유산 관련 세미나와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무성서원에서 열리는 KBS 국악한마당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무관중 녹화 방식으로 진행되며 오는 25일 KBS에서 방영된다.

'2020년 세계유산축전- 한국의 서원'은 '서원, 세계의 꽃이 되다'라는 타이틀로 세계유산목록에 등재된 9개 서원(무성, 소수, 남계, 옥산, 도산, 필암, 도동, 병산, 돈암서원)에서 다채롭게 진행된다. /정읍=김태환 기자

바람따라
완주따라



2021-2022
방문의 해

'마주침, 그 순간들' ... 서혜연 개인전

gallery숨에서는 '마주침, 그 순간들'이라는 전시명으로 서혜연 개인전이 열린다.

이번 전시형태는 gallery숨 전시공간지원 기획 '공감-공유'로 오는 13일부터 25일까지 전시한다.

gallery숨의 전시기획 '공감-공유'는 전시공간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작품을 통한 공감과 공유를 원하는 작가의 신청을 받고, 소정의 심의 후에 선정된 작가의 전시를 지원하는 것이다.

이는 개성 있는 작가의 다양한 작품들을 선보이고자하는 gallery숨의 의지다.

서 작가에 따르면 마주침, 그 순간들 내 삶 속에는 수많은 마주침이 어우러져 있다. 이 마주침들은 기억과 망각을 거듭하며 나의 몸이 고스란히 스며 들어간다. 내 몸은 경험의 역사이다.

흐르는 시간 속에서 무심히 살다가도 스치는 무언가가 내면의 기억들을 일깨울 때가 있다. 그 기억 속에 남아 있던 시간의 조각들이 현재로 소환되어 다가서는 순간 그 때의 나를 만나 공감하고 속삭이며, 내 안의 타인을 느껴보기도 한다.

코로나의 세력 속에 시간이 멈춰 버린 듯한 지금, 각별한 인연으로 맺어진 그녀들이 나에게 다가왔다.

그녀들의 시간이 고스란히 나를 관통해 가고 있는 지금, 내가 그녀들이고, 그녀들 또한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습들이다.

그녀들을 추억하는 시간은 이제 나와 마주하는 시간이다. 그 시간을 통해 나를 깊이 통찰하고 응시해 본다.

나의 시간이기도 한 그녀들의 시간!
그 내면의 시간 속에 남겨진 기억과 망각의



gallery숨에서 13일~25일 전시

은밀한 표정, 그 다중적인 이미지를 화면에 담아내고자 했다.

그리고 내일의 과거가 되어버린, '오늘'의 마주침을 꿈꾸어 본다.

한편 서 작가는 서울 여자대학교 미술대학 공예학과를 졸업하고,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미술교육을 전공했다. 또한 서 작가는 개인전

12회, 다수의 초대전 및 기획전을 열었다. 현재 한국미술(사)아트워크, 전업작가, 전북구상 작가회, 색깔로 만난 사람들, 전주누드 크로키 전주 이야기 회원으로 활동 중이다. /장은성 기자

완주 스테마박물관

문체부 '우수 박물관' 선정

완주군 대한민국스테마박물관이 문화체육관광부 우수 박물관으로 선정됐다.

완주군은 대한민국스테마박물관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시행한 국립박물관 평가에서 우수 박물관으로 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

국립박물관 평가인증제도는 매 2년마다 전시, 유물, 교육, 시설, 인력, 홍보, 운영 등 8개 분야 36개 항목에 배점을 두고 서류 및 현장심사, 전문가 실사 및 대면평가,심사위원회 등 3 단계에 걸쳐 진행된다.

개관 이래 첫 평가를 받은 대한민국스테마박물관은 전문 인력을 중심으로 꾸준하고 빈틈 없는 박물관 운영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도내 박물관 가운데 가장 활발하게 기획 전시를 펼쳤으며 특색 있는 프로그램도 호평을 받았다. /완주=이종복 기자